Q 낙동강선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펼친 지연전 과정은 ?

A 한강방어선이무너진 후 국군과 유엔군은축차적인지연전으로지역을양보하면서시간을얻었다. 그때미군은경부선을 중심으로서부전선을담당하고, 국군은중부와 동부전선을담당했다. 그러나국군과 유엔군은여전히전투력의열세를만회하지못했으며, 결국 낙동강선까지후퇴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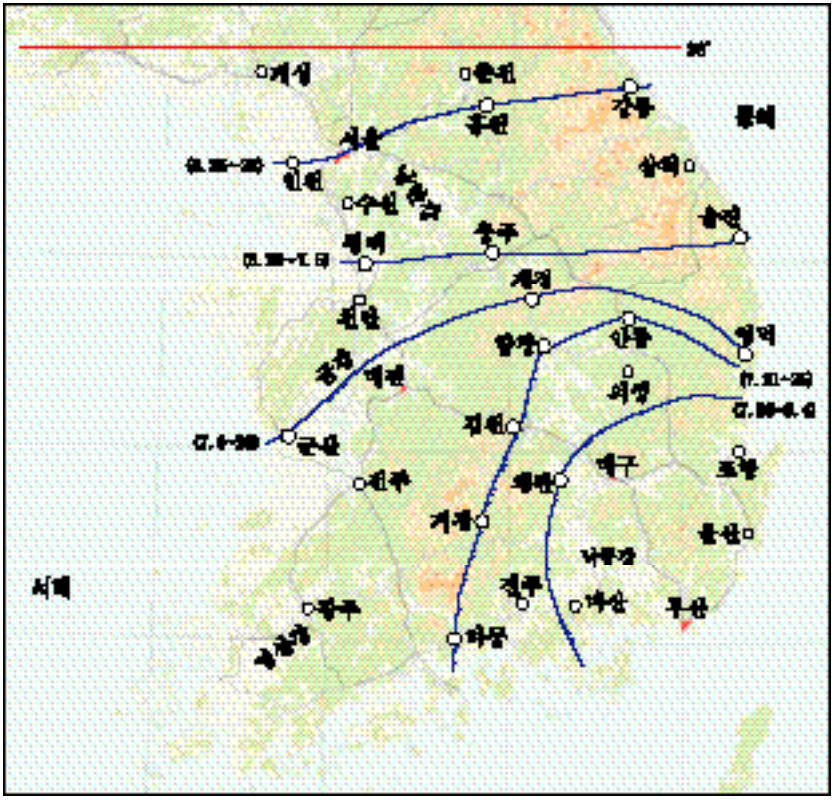
서부전선의 지연전

국군이 한강선에서 물러난 후 다시 수원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는 동안에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시작으로 한국에 상륙한 미 제24사단은 경부국도에서 국군과 교대하는 형식으로 그 일대에 투입됨으로써, 그 후 자연스럽게 서부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1개사단이 투입된 미군 역시 북한군에 비해 병력 숫자면에서 매우 열세한 상태였다. 따라서 그 시점의 작전개념은 어떻게 하든지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확보해 최대한 빨리 전투력을 회복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군과 유엔군은 우선 축차적으로 몇 개의 방어선을 선정해 새로 투입된 병력을 배치하고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둔화시키려 했다.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은 평택 - 안성선을 최초의 저지선으

국군 및 유엔군의 지연전 전개과정



로 선정하고 전초부대로 스미스부대를 오산 북방에 배치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군의 거센 돌풍을 맞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스미스부대가 붕괴되고 이어서 천안 일대의 미 제24사단 방어진지가 단 하루만에 붕괴됐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은 금강선을 다음 저지선으로 선정하고 후속부대의 전개시간을 얻기 위해 북한군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금강방어선 또한 후방을 차단하는 북한군 게릴라와 정면을 유린하는 전차의 공격으로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금강방어선이 무너지자 미 제24사단은 대전방어를 위한 급조편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전도 7월 20일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대전이 함락되자 워커 장군은 중동부전선에 투입했던 미 제25사단을 화령장 - 상주 일대로 황급히 전환시켰다. 그리고 상륙작전부대로 운용하려 했던 미 제1기병사단을 영동 - 김천선에 전개시켜 경부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을 막게했다.

중 · 동부전선의 지연전

7월 5일, 미 제24사단이 작전에 투입된 후부터 국군은 전선의 중 · 동부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중 수도사단 및 제1 · 제2사단은 중부전선의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제6 · 제8사단은 중부전선의 동부지역을 담당했다. 그리고 동해안은 제3사단이 담당했다.

국군의 작전개념은 서부전선의 미군과 함께 적의 진출속도를 최대한 지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만일 중부지역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가깝게는 대전을 포함한 경부축선의 동측방이 노출될 것이며, 멀게는 부산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공격로를 적에게 허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엔 공군의 후방폭격이 증가함에 따라 보급사정이 악화된 북한군은 공중에서 쉽게 탐지되는 양호한 기동로보다 산악지역을, 주간기동보다 야간침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부전선보다 중동부전선의 작전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중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과 북한군의 충돌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됐다.

또한 동해안선에서는 국군 제3사단이 미 해군의 함포사격과 함재기

의 지원폭격하에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영덕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치열한 전투 결과 7월 25일에는 영동 - 상주 - 함창 - 예천 - 안동 - 영덕 남쪽으로 이어지는 전선이 형성되었다.

서남부지역의 지연전

7월 20일, 대전을 상실한 미군이 경부국도를 따라 철수하면서부터 경부국도 서쪽의 호남지역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 시기에 서남부지역으로 진출한 북한군은 제6사단이었다. 그들은 서해안을 따라 은밀히 남진을 계속해 호남지방을 빠른 속도로 석권했다.

이렇게 호남으로 우회한 적이 진주와 마산을 거쳐 부산으로 침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백했다. 그러나 미 제8군은 당장 그들을 막아낼 만한 부대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군은 호남지역을 우회하면서 항구를 통해 그들의 병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목표와 여수를 경유했다. 그동안 워커 장군은 상주 남방에서 방어 중이던 미 제25사단을 황급히 마산 정면으로 돌렸다. 그때의 기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지 못했던 가장 신속한 기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그렇게 유엔군은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일촉즉발의 위기를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1. 낙동강방어선에 이르기까지 국군과 유엔군의 주요 방어선은?
2. 호남지역의 북한군이 신속하게 부산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